

2027년
문예진흥기금
지원사업
설명회

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



한국문화예술위원회



■ 사업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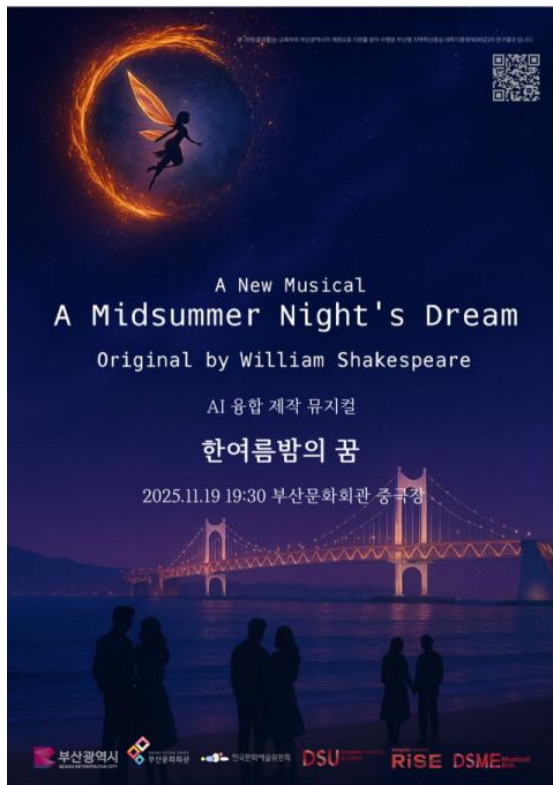
- 예술대학 교육과 실제 현장 간의 미스매치 심화:
학술 중심의 대학 교육과 급변하는 예술 현장의 실무 역량(기획, 유통, 기술 융합 등) 간의 간극 발생
-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작품 제작 및 발표, 현장 협업 경험을 제공할 가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증대
- 청년 예술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기:
초기 경력 형성 단계에서의 경제적 불안정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타 산업 군으로 유출되는 사례 증가



- 학부생 및 초기 경력자들에게 '예비예술인'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,
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축 기회 제공
- 단순 보조 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창작·실무 참여를 통해 기획, 제작, 마케팅,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현장 대응 능력 함양
- 사례비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해 예비예술인이 법적·경제적 보호를 받으며 창작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기초 토대 마련



■ 학교 과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독립IP와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전환된 모델 1.



우수사례 ① | 동서대학교 [DSME] "대학 내 가상 제작사 설립부터 상업 극장 공연까지"

01. 교내 예비예술인 전문 제작단체 설립

-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유일의 예비예술인 뮤지컬 전문 제작단체 설립

02. 실제 공연 현장 진출

-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등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 정식 유료공개 공연을 선보이며, 창작부터 실연까지 실전 경험 확대

03.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

-지역 공연장기업과 협력해 신작뮤지컬을 개발하고, 전국 투어 및 장기 공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현장연계와 진로 확장 기반 마련



■ 학교 과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독립IP와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전환된 모델 2.



우수사례 ② | 서울예술대학교 x 계원예술대학교 「한 권의 책」
"문예창작 x 디자인 융합" 독립 출판물 제작 및 아트북 페어 유통"

01. 전공 간 협업으로 작품 제작

- 서울예대 문예창작전공 학생들의 글 + 계원예대 학생들의 그림을 결합해 그림책 제작
- 대학 간 협업을 통해 글과 시각예술이 결합된 창작물 구현

02. 독립 출판 및 작품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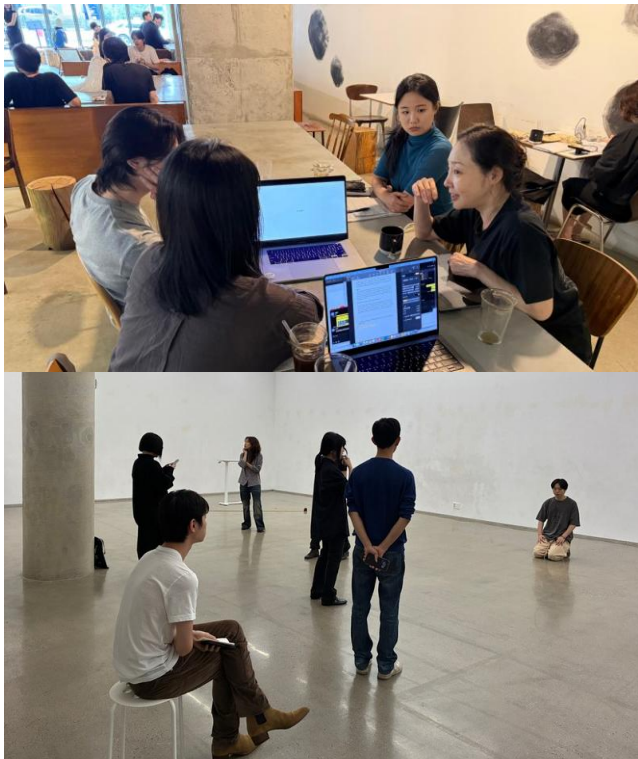
- 문예창작전공 수업을 통한 독립 출판물 제작
- 미출간 학생 작품과 독립출판물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보이며 관객과 업계 관계자에게 소개

03. 실제 예술시장과 접점 확대

- 서울예대 아프로프로젝트 부스로 대학 최초 서울국제도서전 참가
- 낭독회 작가와의 대화 등 관객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 운영



■ 학교 과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독립IP와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전환된 모델 3.



우수사례 ③ | 계원예대 x 옴/신 페스티벌 "동시대 예술축제 큐레이팅 연계 학점과 창작 사례비 동시 취득"

01. 현장 전문가의 실무 교육

- 옴/신 페스티벌 사무국장이 공연기획제작 실무강의 진행
- 작품리서치, 일정 관리, 예산정산, 홍보 및 관객응대 등 축제 운영 전반 학습

02. 전문 예술현장 실습

- 국제 동시대 예술다원예술 축제인 옴/신 페스티벌 인턴십 참여
- 축제 기획 및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 강화

03. 교육과 창작활동의 실질적 연계

-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 인정과 창작 사례비 동시 취득
- 대학 교육과정과 전문 예술현장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산학협력 모델 구축



■ 학교 과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독립IP와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전환된 모델 4.



우수사례 ④ |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「뉴비스테이지」 "전통예술 아트마켓 운영 및 창작작품의 전문 무대·방송 유통"

01. 예비예술인 주도 창작·제작

- 기획부터 창작, 실연, 무대운영까지 공연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
- 작품 발표와 전문가 평가회를 통해 창작 역량 및 작품 완성도 강화

02. 전문 공연시장으로 작품 유통

-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해 축제 및 문화기관 공연으로 연계
- 무안갯벌축제, 국립민속국악원 기획 공연 등 실제 유통 성과 창출

03. 국내 주요 무대 및 방송 진출

- 서울국악축제,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·공연 무대 진출
- 「노(怒)풀이」 작품이 KBS 「국악한마당」 유통 작품으로 선정



■ 학교 과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독립IP와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전환된 모델 5.



우수사례 ⑤ |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「Blended on Theatre」
"창작 희곡 IP 개발 → 전문 공연장 초청·OTT 유통 및 산업 진출"

01. 창작 IP 개발 및 공연화

- 예비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창작 희곡 2편 개발 및 공연화
- 기획창작제작홍보운영 전 과정 참여를 통한 창작제작 역량 강화

02. 전문 공연시장 및 콘텐츠 유통

- 자체 개발 희곡 IP 기반 연극 「장도」 2024 국립정동극장 기획 초청 공연
- OTT 플랫폼(OA Live) 유통을 통한 공연 콘텐츠 확장

03. 취창업 및 대외 성과

- 예비예술인 권도균·김윤정,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캐스팅
- 대학내 창작 경험을 실제 공연·영상 콘텐츠 산업 진출로 연결



■ 사업 성과 및 만족도

구분	세부 내용
정체성 만족도	✓ 예술단체 현장 경험은 향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에서 강점을 보였으며, 대학 교육은 예술활동의 사회·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창작 역량 만족도	✓ 창작 역량을 쌓는 데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타인 추천 및 재 참여 의향	✓ 예비예술인들이 본 사업이 제공하는 '현장 데뷔와 실무 경험' 자체를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
예술가적 정체성 확립 및 직업 의식 고취	✓ (정체성 확립)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성과는 '스스로를 전문 예술인으로 인식'하게 된 점이며, 이는 단순 기술 습득보다 상위 단계의 질적 성장을 의미 ✓ (진로 확신 및 지속 가능성 제고)사업 참여 후 예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비참여군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, 예술계 인력 유출 방지 및 기초 예술 토양 강화에 기여
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전수	✓ (전문성 내재화) 현업 전문가(멘토)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접하기 힘든 무대 기술, 행정 실무, 네트워크 관리 노하우를 단기간에 체득 ✓ (네트워크 자산 형성) 운영 기관과 예비예술인 간의 일회성 관계를 넘어, 사업 종료 후 실제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생태계 네트워킹 성과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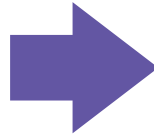


■ 사업 목적

- 예술대학(원)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대학(원) 중심의 컨소시엄 지원

■ 2027년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6년(당초)
지원기간	✓ 단년(2026년)
지원대상	✓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: 예술대학(원) 재학생(박사과정 참여 불가)
지원조건	✓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2개 사업까지 신청가능



2027년(변경)
✓ 단년(2027년) 또는 다년(2027년 ~ 2028년)
✓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: 예술대학(원) 재학생 및 대학 졸업(수료) 후 3년 이내 청년
✓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



■ 신청 대상

- 예술관련 학과(전공)이 개설된 대학(원)의 산학협력단

■ 신청 자격
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
 - ⇒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(요건) : 예술단체, 문화예술시설(공연장, 전시장 등), 기업, 대학 등
 - ⇒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,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
 - ⇒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

컨소시엄 예시

- 대학(원)+민간예술단체
- 대학(원)+문화재단
- 대학(원)+공연장, 대학(원)+전시장
- 대학(원)+출판사
- 대학(원)+기업(후원)
- 대학(원)+타 대학(원)+민간예술단체
(2개 이상 단체로 구성 가능)



■ 지원 내용

- 예술대학(원)이 민간예술단체, 문화재단, 공연장, 전시장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*에게 창작, 실연, 기획, 기술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비용 지원

* 예비예술인 : 예술대학(원) 재학생 및 대학 졸업(수료) 후 3년 이내 청년

지원대상사업예시

* 예시이며, 심의와는 무관함

- 예시①
A예술대 학생 + (학사연계)B공연단체, C미술관, D페스티벌, E극장, F재단 등 현장 실습과 창작
+ (학교밖)G미술관, 공연장 발표(→A예술대 교과목 개편)
- 예시②
A예술대 학생 + (지역내/외)B예술대 학생 + 자원공유
+ (학사연계)공동창작, 극장, 미술관, 페스티벌 참가(→A/B예술대 교과목 개편)



■ 예비예술인 참여 기준

- 예술대학(원) 재학생 및 대학(수료) 후 3년 이내 청년
 - 대학 졸업(수료)생은 2024년 1월 이후 졸업(수료)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
 - 예술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연령 제한 없음.
 - 교환학생, 휴학생, 졸업예정자(막학기생), 졸업유예(졸업유보)자 등 포함
 - 박사과정 참여 불가
-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,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
 - 프로젝트 기간 내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) 제출 필수
- 중복 참여 제한
 - 예비예술인 참여자는 'K-Art 청년 창작자 지원', '지역예술 활성화', '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'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- **예비예술인 창작 사례비(아티스트피)**
 - 최소한의 인건비 성격의 경비로 재료비 포함, 인턴십 급여, 지원금 등의 목적 외 편성 불가
 - 프로젝트 참여 역할 및 기여도에 따라 사례비 차등 지급 가능



■ 지원 조건

- (예비예술인 모집)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
 - ⇒ 선정된 예비예술인은 계약서 작성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회원가입 후 참여대학 등록 필수
- (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) 총 예산의 40% 이상 편성(예비예술인 사업 참여 계약서 작성 필수)
 - ⇒ 간접비 편성은 불가하며,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 인건비(행정인력, 교원 등)는 예산의 15% 이내, 멘토 등 사업 참여인력 사례비 예산의 20% 이내, 사업추진비 예산의 2% 이내 편성 가능
- (사업 장소) 예술현장 경험 제공을 위해 사업 장소는 학교 밖(국내)을 권장하며, 일반 대중에게 공개 발표해야 함
- (홈페이지 등록) 예비예술인의 활동 내역을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thearts.arko.or.kr/pre-artist/>)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활동 내용은 향후 각종 평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



■ 2027년 공모 예산

- 12,710백만원

⇒ 단년/다년 선정 규모는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(단년 75%, 다년 25% 예정)

■ 지원 규모

- 단년(1개년) : 1억원 ~ 1억5천만원
- 다년(2개년) : 연간 1억원 ~ 1억5천만원 원
 - ⇒ 다년(2개년)일 경우 매년 동일 금액을 편성하여 신청(2년간 최대 3억원)
 - ⇒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이 가감될 수 있음.



■ 심의 방법

- (1차) 서류심의, (2차) 심층 인터뷰심의

■ 심의 기준

30%

신청 주체의
사업 수행 역량

7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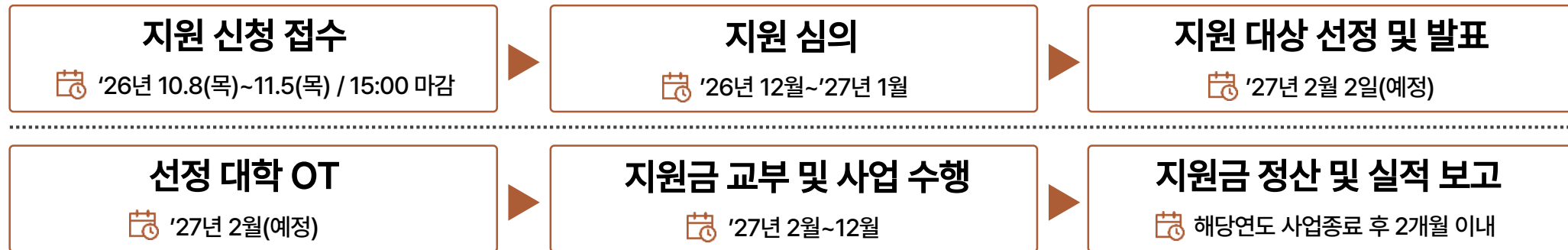
사업 계획의
실현 가능성

가점

비수도권 대학 신청 시, 1점 가점
인구 감소 지역 신청 시, 0.8점 가점



■ 사업추진절차



■ 사업관련문의

- 예비예술인지원사업 공용 메일: pre-artist@arko.or.kr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연락처
김봉수 차장: 02-760-4681 / 이혜람 대리: 02-760-4559